



1 브라질월드컵 개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지 분위기는 여전히 뒤숭숭하다.



2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쿠리치바 경기장에서 바다 고르기 공사를 하고 있는 인부들



3 열기가 뜨거운 카니발. 쿠리치바-상파울루-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 | AP-신화뉴스

월드컵 열기? 카니발에 밀리고 최악의 시설에 떨어지고...

통신원 수첩 | 브라질 현지서 본 브라질월드컵 열기

경기장 공사 지지부진 속 온통 카니발 관심 브라질 자국민 보호 위해 콘돔 1억개 배포 열차노선 태부족...공항들도 대부분 공사중 "물가 인상 요인" 월드컵 반대 시위는 계속

2014브라질월드컵 개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축구 열기로 한참 뜨거워져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브라질 현지는 월드컵보다 대표적 축제인 카니발에 더 열광하는 모습이다.

지난 달 28일부터 엿새 동안(현지시간 2.28~3.4)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진행된 카니발(일명 리우 카니발)에 브라질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매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국가 행사를 열리는 카니발은 채 일주일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지만 오직 이를 위해 브라질 내 수많은 도시와 삼바(브라질 전통춤) 학교들은 모든 열정과 노력을 쏟는다. 특히 각 지역 대표들이 나와 펼치는 상대한 춤 퍼레이드는 백미다. 이 행사를 보기 위해 브라질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매년 40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리우데자네이루를 찾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리우데자네이루 호텔의 빈방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삼바 열기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인지 정작 월드컵 준비는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이다. 한국대표팀과 직·간접적으로 연계가 된 모든 도시들의 분위기는 썩 뜨겁지 않다. 러시아와 대항 조별리그 1차전이 열릴 아마존 남부의 쿠이아바는 물론이고 알제리와 2차전 장소이자 조 2위로 예선을 통과할 경우 16강전까지 치러질 포르투알레그리나 한국 축구의 16강이 가려질 벨기에와 3차전 격전지 상파울루까지 마찬가지다. 그나마 브라질 정부의 지원금 확보와 국제적인 홍보를 위해 도시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의 월드컵 베이스캠프 프지 포스 도 이구아수스의 노력은 예외로 비쳐진다. 이구아수시(市)에서는 한국대표팀의 캠프를 유치하기 위해 시 당국과 현지 관공청, 기업들이 발 벗고 나섰다.

●불안한 교통, 숙박, 치안

모든 면에서 아직 부족해 보인다. 당장 기초 인프라부터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지지부진한 경기장 건립은 여기서 굳이 다루지 않더라도 걱정거리다. 넓은 국토 면적에 비해 교통편부터 최악이다. 열차 노선이 잘 마련돼 있지 않은 탓에 월드컵 기간 중 항공편에 올린 해

야 하는데, 대부분 공항은 공사 중이다. 청사를 새로 짓거나 활주로 보수 공사가 한창이다. 일부 공항은 월드컵 개막 때까지 제 몫을 하지 못할 것이라 보도가 나오는 실정이다. 호텔과 호텔 등 숙박 시설도 부족하고, 치안도 불안하다.

여기에 월드컵 반대파의 계속되는 시위는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다. 최초 확보 예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쓰고 있다는 점이 시위의 이유다. 시위대의 주장은 나름 합리적이긴 하다. 병원과 학교 등 국민들을 위한 시설 투자에는 인색했던 반면 월드컵 준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공공요금을 지나치게 올렸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버스 요금을 불시에 인상시켜 소동이 일어났다. 앞선 데 묘한 격으로 국경을 지키는 연방 경찰들도 월드컵 개막에 맞춰 임금 인상을 위한 시위를 계획하고 있어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브라질은 작년에 비해 경제가 상당히 침체돼 있다. 달러화 강세와 이에 따른 물가 상승이 만만치 않다. 숙박 시설 부족과 비상식적인 숙박비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중재에 나선다고 했으나 이를 역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브라질은 월드컵 개최를 통해 국가 브랜드 상상을 노린다. '건전한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사실 브라질은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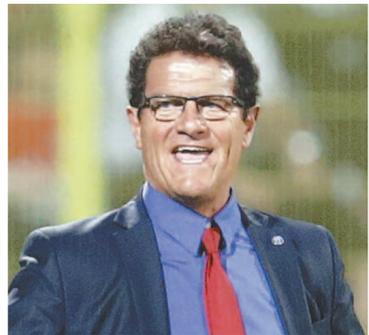
(性)적으로 상당히 개방된 곳으로 인식된다. 최근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월드컵 기간에 브라질을 찾을 해외 관광객들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남겼다. "부디 여러분들의 건전한 여행이 되길 바란다. 섹스(Sex) 관광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마련해왔다. 각별한 주의 를 바란다."

그런데 브라질은 이번 카니발 기간 중 자국민 보호를 위해 무료로 남성 피임도구인 콘돔을 1억 개 이상 배포했다는 후문이다.

이구아수(브라질) | 이기환 통신원

●이기환 통신원은?

이기환(34) 통신원은 1986년 파라과이로 이민을 떠난 뒤 1988년부터는 브라질 포스 도 이구아수에 거주하고 있다. 이구아수 폭포로 유명한 이곳은 대표팀 홈명보호가 2014브라질월드컵 기간 중 베이스캠프를 차릴 지역이다. 그는 1999년 고려대학교에 입학했고, 2002한일월드컵 당시 대한축구협회 연락관으로 활동하며 축구와 인연을 맺었다. 현재 브라질에서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다.



"월드컵상대 모두 경계" 몸 사리는 카펠로...왜?

(러시아대표팀 감독)

잉글랜드 감독 시절 알제리와 무승부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 경계심

"월드컵에서 상대국을 존중해야 한다." 러시아대표팀 파비오 카펠로(68·이탈리아·사리) 감독이 한껏 자세를 낮췄다. 카펠로는 아르메니아와 평가전(한국시간 3월 5일 밤 11시)을 하루 앞둔 4일 기자회견에서 알제리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지금은 알제리가 아니고 아르메니아를 생각해야 할 때"라 말을 아꼈다. 이어 그는 "아직 월드컵까지 시간이 많다. 월드컵에서 상대할 나라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브라질월드컵에서 한국, 알제리, 벨기에와 같은 H조다.

원론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카펠로와 알제리의 과거 악연을 생각하면 그가 몸을 사리는 게 이해가 간다.

카펠로는 4년 전 남아공월드컵 때 잉글랜드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 당시 잉글랜드는 미국, 슬로베니아, 알제리와 C조에 속했다. 잉글랜드가 무난하게 1위로 16강에 진출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자 예상 밖이었다. 잉글랜드는 미국과 1차전에서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뒤 알제리와 2차전에서 득점 없이 비겼다. 잉글랜드는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슬로베니아를 1-0으로 간신히 이기며 16강에 턱걸이했다. 하지만 2위로 올라간 탓에 16강에서 D조 1위인 우승 후보 독일을 만났고, 충격적인 1-4 대패를 당했다. 잉글랜드는 확실한 1승 제물이었던 알제리를 꺾지 못한 게 치명적이었다.

카펠로도 직접 알제리를 언급했다. 그는 "작년 12월 본선 조 추첨 직후 남아공월드컵이 생각났다"며 "우리에겐 조별리그 상대국을 관찰할 시간이 아직 많다. 난 알제리가 4년 전 내가 이끌던 잉글랜드를 상대로 어떻게 싸웠는지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알제리와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맞붙는다.

한편, 카펠로는 "선수들이 훈련 과정에서 책임감을 갖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 선수들은 월드컵 본선까지 최적의 상태로 입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 한다. 경기력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며 발발을 요구했다.

윤택서 기자 sportic@donga.com 트위터@Bergkamp08

중앙수비 홍정호·김영권 호흡 큰 수확

■되돌아 본 홈명보호 8개월

양 측면 수비 찾기위해 다양한 테스트 무득점 경기 4차례나...골 갈증은 여전히 손흥민 3골 활약·이청용 리더십은 희망

홈명보 감독은 작년 7월 동아시아인컵을 앞두고 국가대표팀 감독에 취임했다. 브라질월드컵 8회 연속 본선진출을 이끈 최강의 감독(현 전북 현대)의 후임으로 지휘봉을 잡았다. 당시 대표팀은 크게 휘청거리고 있었다. 기성용(선덜랜드)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파문이 터져 나왔고, 해외파와 국내파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태극마크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홈 감독은 취임일성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하나의 팀(one team one spirit one goal)을 강조했다.

●시작은 수비 조직력

과정을 중시하며 걸음마를 뒀다. 모든 초점을 브라질에 맞췄다. 장기적인 관점을 세우고 하나들 계획을 세워나갔다.

8개월 동안 태극마크를 단 선수들은 모두 52명. 국내와 일본, 중국 등 주로 아시아에서 뛰는 선수들이 7월 동아시아인컵에 부름을 받았다. 홈 감독은 먼저 수비 조직력을 다듬었다. 홍정호(아우크스부르크)와 김영권(광저우 에버그란데)이 주전으로 낙점됐다. 수비는 홈 감독이 생각하

는 축구의 근간이다. 공간과 압박을 풀어가기 위해서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필요로 한다. 호주 및 일본전에서 중앙수비로 활약하며 팬층은 호흡을 보여줬다. 빈공에 시달렸던 공격에 비해 수비 안정은 도드라져 보였다. 가장 큰 수확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들은 줄곧 중앙 수비를 맡았다. 오랜 시간 호흡 맞추기가 필요한 포지션. 홈 감독은 자신의 축구를 구현할 핵심 선수로 둘을 꼽았고, 이들에게 아낌없는 신뢰를 보였다. 단점이 없진 않았다. 세트피스에서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으며, 대인마크에 취약했다. 경험 부족에서 오는 경기운영도 피해갈 수 없었다. 평가전을 통해 이를 조금씩 보완하고 있다. 세대교체가 진행되는 가운데 베테랑 콰테쉬(알 힐랄)도 한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걱정은 양 측면 수비였다. 이영표의 은퇴로 무주공산이 된 왼 측면과 오른 측면은 쉽게 대체자를 찾지 못했다. K리그 대표 선수들이 두루 기용했으나 조금씩 아쉬웠다. 김진수(알비렉스 니가타)와 이용(울산)이 동아시아인컵에서 해상같이 등장하며 한발 앞선 모양새다. 이번이 없는 한 브라질월드컵 한자리를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왼쪽과 오른쪽 한자리는 여전히 미지수다. 신체조건이 좋은 러시아와 벨기에를 상대로 강인함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의 발달도 검토 중이다. 독일 본테스리가에서 경쟁력을 키운 박주호(마인츠), 부상 낙마한 차두리(서울)에게도 기회는 열려 있다.

●여전한 골 갈증

홈명보호 출범 8개월, 5일 현재 4승3무6패를 기록하며 13득점, 17실점했다. 경기당 1골, 수차상으로 보면 중간은 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아쉬운 구석이 많다. 우선 무득점 경기가 4차례나 됐다. 출범 직후 치른 호주, 중국, 페루전이 단적인 예다. 위안을 삼자면 공격의 중추인 유럽파 선수들이 합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아이터 및 말리와 같은 상대에게 각각 4골과 3골을 퍼부었다. 전체 13골 가운데 7골이 터져 쏠림현상이 심하다. 반대로 강화와 평가전에선 슈이 골문을 열지 못했다. 대표팀은 10월 브라질 평가전을 통해 진일보한 모습이었다. 유럽에서 활약하는 공격수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

손흥민(레버쿠젠)이 홈명보호에서 3골을 넣어 최다득점자다. 이청용(볼턴)은 11월 스위스 및 러시아 평가전에서 주장 완장을 차며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줬다. 스위스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며 남아공월드컵 우투과이와 16강전 이후 오랜만에 골 맛을 봤다. 홍정호는 같은 경기에서 홈명보호의 첫 번째 세트피스 득점을 기록했다. 코너리 상황에서 호쾌한 헤딩슛을 터뜨렸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선 구자철(마인츠)과 김보경(카디프시티)도 각각 2골과 1골씩 넣었다. 최전방 공격수의 부진 속에 김진욱(울산)이 빛났다. 11월 스위스 및 러시아 평가전에서 뛰어난 움직임과 연계 플레이를 펼쳤다. 러시아전에서 골을 기록하며 각광을 받기도 했다.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 @sangjun47



홈명보호가 출범 8개월을 맞으면서 수비 조직력 다지기과 공격 조합 찾기에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극전사들이 5일(한국시간) 그리스 평가전에 앞서 짝을 이루고 훈련하고 있다.

아테네(그리스) | AP뉴스